



### 이지 스님의 감춰진 불교이야기

#### 4.중국승려 혜심의 미대륙 발견설

이슬람 과학 원리주의자들에 의한 미국 뉴욕의 테러 대참사와 지난 3월 파괴된 바미안 대불은 어떤 상관 관계가 있을까? 물론 바미안 대불은 고대불교의 인성함을 상징하고 있고, 수많은 신봉과 함께 파괴되어 버린 뉴욕의 무역센터는 현대의 경제적 성취를 대표한다. 그리고 감춰진 차원, 우리가 잃어버린 차원의 불교사에서 보자면 불교와 미대륙은 서기 5세기부터 관련을 맺고 있었다. 황당한 이야기 같지만 지금 불교와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세상에 알려진 사실은 일본의 일도 안 된다. 절을 주목해주시기 바란다.



◇미대륙에서 발견된 6세기경의 비취두상. 이 차이를 나타낸다"는 기록은 바로 인디언의 풍속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나영거의 논문에 실린 기묘한 이야기들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일단 콜럼버스 이전에 미대륙 발견설은 수 없이 많지만 특히 중국인들에 의한 미대륙 발견설은 B. 라우퍼의 <콜럼버스와 중국>, H.코르디에의 <중국통사>, 조셉 니덤의 <중국의 과학과 문명>, H.메츠의 <중국인의 미주탐험에 관한 고대기록>과 같은 1급의 구미동양학자들에 의해 전개되고 있다. 더욱이 메츠는 미국서부와 멕시코의 웨이 산(魏山, 피쿠(Pico), 사카(Secha) 등과 같이 불교에서 기원하는 지명은 물론 연꽃문양과 코끼리를 조각한 문양들이 있음을 지적하고 "1,500년 전 그들이 가르친 선한 마음과 지혜는 지금까지 멕시코 사람들의 마음에 살아있다"라고 쓴다. 또한 혜심의 미대륙 도착설에 대한 중국학자들에 의한 논문은 주경지(朱景之)가 쓴 '콜럼버스 이전 1천년 전 중국 승려에 의한 미주 발견설 고찰' (北京大學學報, 제4기, 1962) 등 수없이 많다.

그렇다면 그들은 콜럼버스 이전 한 중국 승려가 이끄는 다섯 비구들이 미대륙에 도착했다는 이야기를 왜 그토록 힘주어 주장하고 있는 것일까. 결론만 지적한다면 그들은 남미와 북미대륙이 백인들만의 땅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다. 실제로 미대륙의 해안과 내륙에서 발견된 비취두상은 중국인의 얼굴 특징과 5세기경의 모자를 뚜렷한 특징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이 분야는 해명되어서는 안 되는 '미지의 고고학'이라고 한다.

경학회 회주

# 차 올리며 부처님께 조상영혼 인도



## 참물자의 길

## 불교제례의식

추석을 맞아 불교의식으로 차례를 지내려는 불자 가정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불교 제례 의식은 아직까지 정립되지 못한 실정이다. 종교는 불교이면서 유교식 제례를 행하면서도 이에 대해 별다른 문제 의식을 가지지 않는 것도 불교식 가정 제례의 확산을 막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반야심경을 독송했다' '절을 세 번했다' '제수에 육류나 생선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불교식 제례를 지냈다고 할 정도다. 이는 아직까지 정형화된 불교제례 의식의 모범이 없기 때문이다.

마침 한국장례문화연구회(회장 이덕진·고려대 강사)가 추석을 10여일 앞둔 21일 동국대학교 문화관 덕암세미나실에서 '가정에서의 불교식 제사'를 주제로 첫 학술대회를 열어 불교식 가정 제례의 예를 제시했다.

이날 실연된 '가정에서의 불교식 제사의식'을 중심으로 실제로 가

정에서 실천 가능한 불교제례의식에 대해 알아본다.

유교식 제례는 영혼을 위로하는데 그치지 않고 불교의 제례는 조상들의 영혼을 부처님 앞으로 인도하여 모든 장애가 소멸될 것을 기원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일반적으로 불교 제례의식은 차례상에 술과 고기류 대신 차와 과일, 떡, 나물 등으로 검소하게 마련한다.

상차림은 첫줄에 과일과 과자를, 둘째 줄은 나물류와 식혜, 셋째 줄은 채소, 탕류, 넷째 줄은 전과 송편, 차를, 다섯째 줄은 밥(飯), 국(羹) 등의 순으로 진설하면 된다. 그리고 차례상 좌우에 국화 등 현란하지 않은 꽃으로 장식하고, 잔을 올릴 때는 녹차로 한다.

위패, 제물 등 모든 준비가 갖추어지면 향을 사르며 무릎을 꿇고 앉아 제례를 시작한다. 이날 실연된 불교식 제례의식의 순서를 간략히 하면 다음과 같다. (각 과정에는 게 나 염불이 들어간다)

△입정(조상을 추모하는 한결같은 마음을 지닌다) △십념(十念: 부처님 명호를 열 번 염한다) △봉향찬(奉香讚: 향을 사르며 부처님 공덕을 찬탄한다) △정례(頂禮: 조상에게 절을 한다) △독경(반야심경을 염송한다) △헌다(獻茶: 영반의 두공을 열고 손가락을 꿇고 첫

차례상술·고기 대신 차·과일·떡 등 검소하게

불교식 제사 '모범' 없어 지속적인 연구·보급 필요

가락을 진수에 올려놓고 난 뒤 제주가 먼저 잔을 올리고 재배하면 차례대로 잔을 올리고 재배한다 △공경(鞠躬: 조상에게 진지를 올린다) △가사(加持: 국을 물리고 송송을 올린 다음 송송에 밥을 세 번 떠서 정성껏 권하여 올리고 진



◇한국장례문화연구회가 21일 동국대 문화관 덕암세미나실에서 개최한 '가정에서의 불교식 제사' 학술대회에서 불교식 제례를 실연하고 있다.

수에 넣어있던 첫가락의 끝을 가지런히 맞추어 다른 진수에 옮겨 놓은 뒤 제주 혼자 다시 분향하고 잔을 올리면 모두 재배한다 △축원 △염불(수저를 거두고 영반 두공을 담은 다음 모두 자리에 일어나 삼배한다 △봉송(奉送: 신위에 하직인사를 올린 다음 위패를 태운다) 등이다.

입정부터 봉향찬까지는 부처님에 대한 예경과 찬탄에 해당하고, 정례는 차공과 차공 절차에 해당

된다. 반야심경을 영가에게 먼저 부처님의 법문을 들려주는 절차다. 헌다와 공경은 영가에게 차와 음식을 공양하는 과정이며 축원, 염불, 봉송은 발원과 함께 회향에 해당된다.

오늘 실연이 모범적이며 널리 확산될 것이라고 보는 것은 시기상조다. 활발한 토론을 통해 여법한 의식 절차가 조속히 이루어질 것을 기대해 본다.

김중근 기자 gajya@buddhapa.com

## 콜럼버스보다 1천년 앞섰다

원래 458년 제1국(카시미르)의 비구 다섯 명과 함께 부상국에 가서 불교를 포교하다가 40년이 지난 499년 중국으로 돌아왔다는 기묘한 이야기를 역사적 문헌을 바탕으로 해명하고 있다. 여기서 부상국이란 <양서(梁書)> '제이전(諸夷傳)' 등의 여러 고문헌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왜(倭, 일본)에서 일년을 항해해야만 도착할 수 있는 먼바다 땅이다. 라영거는 혜심의 기록을 바탕으로 혜심과 다섯 비구들이 도착한 땅은 바로 오늘날의 멕시코이며, 1,500년의 미대륙을 자연과 인간의 삶을 사실적으로 복원하여 의심할 여지없이 최대의 대여행가 '대인 승려'의 미대륙 도착을 증명한다. 즉 <양서>에서 적고 있는 부상국의 특징을 들어 "그 나라 사람들은 부상국을 식용한다", "부상의 껍질로 실을 짜서 옷을 입는다"는 기록은 바로 용실란을 의미하며 "나무판자로 지은 집에 살며 성곽이 없다", "철은 없고 동(銅)이 있으며 금과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남자는 모두 몸에 문신을 하며 문신에 따라 존비



"마른 통박대기"는 어떻습니까? 붙잡을 곳도 없고 재미도 없어서 배속이 갑갑함을 느낄 때가 바로 좋은 소식입니다. 다만 세간의 잡다하고 피곤한 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른 통박대기' 위에 돌려 놓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여서 어떻게든 할 수 있는 곳에 이르러 기량이 문득 다하면, 곧 스스로 깨달을 것입니다. 마음을 가지고 깨달음을 기다려서는 안됩니다. 만약 마음을 가지고 깨달음을 기다린다면 영원히 깨달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매일 다른 일은 결코 사랑하지 말고 다만 '마른 통박대기'를 사랑하되, 언제 깨달을 것인가는 묻지 마십시오. 지금이 되고 합니다.

깨달을 때에는 시집도 없고, 사람들을 놀라게 하지도 않으며, 즉시 고요해져서 저절로 부처의 심하지 않고 조사(祖師)도 의심하지 않고 살고 의심하지 않고 죽을

## '서장' 통한 선 공부 ③

여사인(呂舍人)에 대한 답서(2)

# 범부는 사랑분별 속에 머물며 집착



김태완 부산대 강사·철학

도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는 곳에 이르는 것이 바로 부처의 지위(地位)입니다. 부처의 지위에서는 본래 의심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삶도 없고 죽음도 없고 유훘(有)도 없고 무(無)도 없고 열반도 없고 반야도 없고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고 이렇게 말하는 자도 없고, 이 말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도 없고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하는 자도 없습니다.

범부의 특징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한 마디로 요약하면, 늘 불안에 떨면서 그 불안을 극복하기 위하여 무엇인가에 집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왜 불안한가?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의문스럽기 때문이다. 왜 불확실하고 의문스러운가? 깨달음의 지

해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범부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깨달아서 지혜의 바른 눈을 갖추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 공부의 가장 요긴한 부분은, 어떻게 하면 지혜의 바른 눈을 갖추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아직 지혜의 눈을 갖추기 전이라면 불확실하고 의문스러움에 의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반딧불이처럼 무엇인가에 의지하고 집착하기 마련이다. 지혜의 눈을 갖추기 이전에 범부가 가진 눈이란, 보고·듣고·냄새 맡고·맛 보고·느끼고·의식하는 이른바 6근(眼耳鼻舌身意)의 눈이다. 그러므로 범부는 보이는 것에 의지하고 집착하며, 들리는 것에 의지하고 집착하며, 냄새에 의지하고 집착하며, 맛에 의지하고 집착하며, 느낌에 의지하고

집착하며, 생각에 의지하고 집착한다. 이 가운데에서도 가장 뿌리 깊은 집착은 생각에 의지하고 집착하는 것, 즉 사랑분별에 의지하고 집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범부는 사랑분별 속에서 선(善)을 찾고 악(惡)을 찾으며, 중생을 찾고 부처를 찾으며, 율음을 찾고 그들의 찾으며, 마음을 찾고 경계를 찾으며, 지혜를 찾고 어려움을 찾으며, 삶을 찾고 죽음을 찾으며, 율회를 찾고 해탈을 찾으며, 돈오(頓悟)를 찾고 점수(漸悟)를 찾으며, 선(禪)을 찾고 도(道)를 찾으며, 공부를 찾고 깨달음을 찾는다. 범부는 이와 같이 사랑분별 속에서 모든 것을 찾아서 그것에 머물러 집착한다. 그러나 사랑분별 속에서 무엇이든 머무르고 의지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불안을 해

소하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킬 뿐이고, 그 머무름과 의지가 또 하나의 불안의 원인이 되어 사실은 불안을 더욱 가중시킬 뿐이다.

유일한 해결책은 의심과 불안을 극복하기 위하여 의지할 무언가를 찾는 그 마음을 포기함으로써, 아무것도 잡을 것이 없는 막막한 상황에 직면하고, 이 막막한 상황에서 본래 아무것도 붙잡지 않고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자신의 참된 존재라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처럼 잡을 것 없는 곳에서 살아 있는 자신을 찾는 것이 바로 깨달음의 지혜를 얻는 것이며, 지혜의 바른 눈을 갖추는 것이다. 완전히 놓아버림 속에서 되살아나는 이러한 체험이 없다면 아무리 오래 선을 공부하고 좌선을 수행했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의식 속에 의지하여 꾸며내는 망상일 뿐이다. <http://www.mindfree.net/>

# 국제 불교 유적 성지순례 인도·네팔·중국·미얀마

인도 9일 상품가 1,690,000원

- 정: 서울-방콕-캘커타-파트나-라지르-보디가야-바라나시-쿠쉬나가르-룸비나-사라와스티-곤다-아그라-델리-방콕-서울
- 출발일: 매주 목요일 출발
- 포함 사항: 방콕 초특급 호텔 1박(관광 없음), 국제선 왕복 항공(타이 항공 이용), 인도 전지역 디럭스 호텔 숙박, 식사, 에어컨 디럭스 차량, 전일정 쓰루 가이드, 관광지 입장료
- 불포함 사항: 김포공항 출국세 (25,000원), 인도 비자피 (55,000원), 카메라피, 음료수, 기사 및 가이드 팁등 개인 비용

- 캘커타 국립 박물관 관광-부처님 진신 사리 친견
- 세계 최초의 불교대학, 날란다 대학 관광
- 마하보디 사원 관광
- 갠지스강 보트투어 및 황금사원 관광
- 부처님의 탄신지 룸비니 관광

인도-네팔 11일 상품가 1,990,000원

- 정: 서울-델리-아그라-바라나시-보디가야-파트나-쿠쉬나가르-룸비나-포카라-카트만두-방콕-서울
- 출발일: 매주 목요일 출발
- 포함 사항: 전일정 디럭스 호텔 숙박 및 식사, 에어컨 디럭스 차량, 전일정 쓰루가이드, 관광지 입장료
- 불포함 사항: 김포공항 출국세 (25,000원), 인도 비자피 (55,000원), 네팔 비자피 (40,000원), 카메라피, 음료수, 기사 및 가이드 팁등 개인 비용

- 라지가트, 인디아게이트, 대통령궁
-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이라 불리는 타지마할, 아그라성 관광
- 갠지스강 보트투어로 갠지스강 일출, 화장터, 황금사원, 힌두인의 목욕의식 관광
- 세계 최초의 불교대학인 날란다 유적지
- 열반지에 세워진 보리수나무와 불교사원
- 포카라 향발중식후 포카라 시내 관광 - 페와 호수, 데비폭포 등
- 히말라야 일출 감상
- 스와양부나스 사원, 황궁광장, 보드나스 불교사원

중국·북경, 대동, 오대산, 태원 5일 상품가: 599,000원

- 정: 인천-북경(대동)-오대산-태원-북경-인천
- 출발일: 수시 출발
- 포함 사항: 디럭스 호텔 숙박 및 식사, 디럭스 차량, 전일정 가이드, 관광지 입장료
- 불포함 사항: 김포공항 출국세 (25,000원), 중국 비자피, 음료수, 기사 및 가이드 팁등 개인 비용

미얀마-양곤/바간/만달레이/사가잉 6일 상품가: 1,690,000원

- 정: 인천-방콕-양곤-바가-폼빠-바간-파간-만달레이-민군-만달레이-양곤-방콕-인천
- 출발일: 수시 출발
- 포함 사항: 디럭스 호텔 숙박 및 식사, 디럭스 차량, 전일정 가이드, 관광지 입장료
- 불포함 사항: 김포공항 출국세 (25,000원), 미얀마 비자피(30,000원), 음료수, 기사 및 가이드 팁등 개인 비용

